

달리는 흥기 안에서 책읽기

빛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디서든 책을 읽을 수 있다. 서재와 도서관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산과 바다, 심지어 화장실도 훌륭한 책읽기 공간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독서에 적대적인 곳도 적지 않다. 달리는 시내버스 안도 그 가운데 하나다.

시내버스 안에서 책을 못 읽으라는 법도 없지만, 그러자면 몇 가지 고역을 감내해야만 한다. 콩나물 시루 같은 만원버스 안은 책읽기를 위한 최소한의 '사적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설령 운이 좋아 자리를 차지하고 앉을라치면 노약자들이 없나 살피느라 좌불안석이기 십상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건하게 노인을 바라보느니 차라리 눈을 감고 만다.

버스에서 책읽기를 방해하는 주적 가운데 하나는 소음이다. 운전기사의 취향이나 기질에 따라 버스 안은 때로 노래방을 방불케 한다. 승객의 취향이나 호불호를 불문하고 틀어대는 라디오는 고문에 가깝다. 가뜰이나 길이 막혀 짜증나는데, 막히는 곳만 찾아다니며 안내하는 교통방송은 거의 '교통방송'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에서 시내버스는 운전기사의 독재가 버젓이 행해지는 곳이다. 놀라운 일은 어느 누구 하나 운전기사의 칭카 횡포에 항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고 아나운서의 계통 없는 수다에 가까대소하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권력자에 대한 노예적 순종이 내면화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신경을 긁어대는 소리를 무시하고 책을 읽는다는 일은 거의 초인적인 달관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버스에서 문자를 붙들고 있는 이들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런 수도자적 경지를 터득한 이들은 만화책에 뉘이 빠진 학생이거나 이어폰을 끼고 영어 회화책을 붙들고 있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다.

곡예사가 모는 달리는 흥기 안에서 책 읽기를 바라는 것은 절에 가서 젓국을 찾는 격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마치 쫓기듯 버스에 타고 내려야 하는 승객들에게 잠시나마 책을 붙들고 있으라고 권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일 것이다. 타고 내리는 사람들을 헬끔거리거나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는 것이 책 읽기보다 오히려 유익한 일인지도 모른다.

최근 한 잡지에 실린 글은 버스 안에서도 책 읽기를 포기하지 않는 캐나다인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민태윤 교수(《시내버스와 장편소설》, 《에머지》 10월호)에 따르면, 캐나다의 에드먼턴에서는 평범한 중년 아주머니들이 시내버스에서 장편소설을 즐겨 읽는다고 한다. 민교수는 시간과 속도를 정확히 지키도록 변함없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이런 풍경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시내버스에서 책을 읽건 그렇지 않건 그것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버스에서 책을 읽고 싶은 소수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지는 않은가. 책을 읽지 않는 시민들의 무관심을 탓하거나 책을 읽으라고 억박지르기만 할 뿐, 책을 읽지 못하게 하는 사소한 제도와 시스템에는 눈을 돌리거나 않았는지 차분히 생각해볼 일이다. -박천홍기자

1991년부터 쌓아 온 한국프리랜서그룹의
노하우는 「부끄럽지 않은 품질」입니다.

편집 디자인(사보, 사사, 홍보물, 교재 등) ● 자서전, 회고록집필 ● 교정 · 교열 · 운문
● 사사(社史)집필제작 ● 취재대행 ● DB자료입력 ● 사보제작 ● 번역

Since 1991-----
(주)한국프리랜서그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1-11(한서빌딩1105호)
Tel:(02)784-4447 Fax:(02)784-4404
E-mail: kfb@koreafreelancer.com
www.efreelancer.co.kr

※ 각 분야 전문가 모집(홈페이지 접수)